KIA, 오늘 한화와 연습경기 '시즌 미리보기'

KIA 타이거즈의 투수 김재열(왼쪽부터), 김양수, 멩덴이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 장현식 선발 낙점…묵직한 직구 선발 경쟁 '조커'

브룩스 내일 출격 '실전 감각' 관건…'특별관리' 류지혁 컨디션 점검

한화와의 연습 경기에서 KIA 마운드의 '조커'와 '다크호스'가 동시에 뜬다.

KIA 타이거즈는 9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7일 자체 연습경기로 몸을 푼 KIA가 이번 시즌 상대팀과 만나는 첫날, 장현식이 선발로 나선다.

장현식은 KIA 선발경쟁의 한 축이다. 광주 캠프가 아닌 함평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했지만, 윌리엄스 감독이 선발 후보로 꼭 집어서 언급한 자원이다.

함평에서 서재응 코치와 폼부터 새로 가다듬은 장현식은 지난 3일 윌리엄스 감독 앞에서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직구 힘'으로 어필했다.

지난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장현식은 시작은 나쁘지 않았지만 제구 난조로 특유의 직구 힘을 살리지 못하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첫 해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잠재력으로는 손에 꼽는 선발 자원이다. 직구 힘을 되살리기 위해 물 흐르듯 폼을 조정한 장현식은 선발 경쟁의 '조커'로 꼽힌다.

양현종의 이탈에다 멩덴도 낯선 리그에 도전하는 시즌인 만큼 브룩스를 빼고는 KIA 선발 자리에 의문이 가득하다. 그만큼 장현식에게는 기회의 시즌이고, KIA 입장에서는 장현식의 활약이 필요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장현식에 이어 이번 캠프의 '다크호스' 이승재의 기용을 예고했다.

이승재는 장현식과 마찬가지로 '직구'로 어필하는 신인 투수다. 7일 좌완 이의리가 신인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전 경험에 나서면서 묵직한 직구를 선보였고, 이번에는 이승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새로 가다듬고 있는 슬라이더 제구가 관건이지만 직구는 프로에서도 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펜 피칭 때도 이미 150㎞를 찍으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선발과 불펜의 경우의 수를 넓혀줄 수 있는 두 선수가 나란히 실전에 나서면서 9일 경기에서는 KIA 마운드를 점쳐보는 재미가 있다.

10일에는 브룩스가 기지개를 켠다.

지난해 9월 19일이 브룩스의 마지막 등판 날이었다. 가족의 교통사고로 급히 귀국하면서 일찍 시즌을 마감했던 만큼 브룩스에게는 실전 감각을 찾는 게 우선 숙제다.

숨을 고르고 있는 내야수 류지혁도 이르면 10일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햄스트링 부상과 재발로 새 팀에서 5경기 출전에 그쳤던 류지혁은 이번 캠프에서 '특별관리 선수'로 페이스를 조절했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미리 "첫 연습경기 때 류지혁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었다. 건강한 몸이 우선인 만큼 천천히 완벽한 상태에서 시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9일까지 몸 상태를 체크한 뒤 10일 류지혁을 라인업에 넣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원정길에는 신인 투수 박대명과 2년차 장재혁도 불펜 대기조로 함께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외야 호령? … '타격 호령' 기대하시라

KIA 연습경기 공격적 스윙
선발 상대 끈질긴 승부 눈길
라인 드라이브 타구 훈련 효과
"출루율 높여 중원 승자 되겠다"

KIA 타이거즈의 김호령이 지난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연습경기에서 스윙을 하고 있다.

중원을 호령하기 위해 김호령이 2021시즌 시동을 걸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캠프 첫 실전을 소화했다.

선발 임기영과 루키 이의리 등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이날 야수에서는 김호령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화이트팀의 6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김호령은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지만 두번째 타석에서는 우중간으로 큰 타구를 보내며 2루까지 향했다.

삼진 타석에서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이날 깜짝 호투를 선보였던 블랙팀 선발 윤중현을 상대로 9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다.

수비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김호령다운' 모습을 보였다.

유민상의 잘 맞은 타구를 벼락같이 낚아챈 김호령은 여유롭게 중원을 누비면서 아웃카운트를 적립해갔다. 블랙팀 덕아웃에서 타자들이 중견수 방향으로 공을 띄울 때마다 "거기는 안돼"라는 외침이 쏟아질 정도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실전에서 첫 타석이었는데 정말 좋았다. 수비에서도 유민상의 잘 때린 타구를 수월하게 처리하는 등 좋았다"며 "타구 판단이 좋은 선수라 배트 맞는 순간에 첫 스텝 등이 정말 특출난 선수다"고 호평했다.

김호령도 "첫 연습경기 치고는 타격이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시합이라 첫 타석에서 살짝 긴장해서 그런지 타이밍이 잘 안 맞았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과감하게 해서 잘 맞은 것 같다"며 "수비에서는 생각보다 타구도 잘 보이고 좋았다"고 평가했다.

터커의 1루수 이동으로 KIA는 올 시즌 중견수·우익수 자리를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지완의 백업 자원까지 외야 가용폭이 넓어진 상황. 김호령은 그만큼 올 시즌 중용을 받을 전망이다. 전제 조건은 역시 '타격'이다.

고질적인 타격 기복으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 온 김호령은 윌리엄스 감독과 발사각을 낮추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김호령은 "연습할 때도 파울이 많이 났었는데 파울도 많이 안 나고 콘택트 면에서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작이 좋은 김호령은 '출루율'에 집중해 중원 싸움의 승자가 되겠다는 각오다.

김호령은 "출루율에 신경 쓰겠다. 치려고 하되 자연스럽게 못 치는 공을 버리고 가야 할 것 같다"며 "요즘 (최)원준이가 많이 알려주고 있다. 어제도 첫 타석에서 계속 파울이 났는데 '치려고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해줬다. '치려고 타격을 해야 하는데 보고 치니까 늦는다'라는 말을 해줬다. '더 과감하게 하라'는 말을 해줬다"고 말했다.

최원준의 조언에 따라 김호령은 '치려고 보는 것'과 '볼을 그냥 보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호령의 불꽃 질주를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은 '건강'이다. 김호령은 매년 캠프 기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번 캠프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다.

김호령은 "100%의 몸상태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캠프를 치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연습만 했는데 연습은 좋았다. 시합할 때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다. 상대 팀들과의 연습경기를 통해서 준비한 것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케인 14골 합작 'EPL 최강 듀오'

단일시즌 최다골…토트넘, 팰리스전 4-1 승리 리그 6위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4골을 합작한 'KBS 트리오' 해리 케인(2골 2도움)-개러스 베일(2골)-손흥민(1도움)의 활약을 앞세워 정규리그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4골을 합작하며 'EPL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신기록을 달성했다.

토트넘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0-2021 EPL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최근 정규리그에서 3연승을 챙긴 토트넘은 승점 45(골 득실+18)로 웨스트햄(승점 45·골 득실+9)과 승점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며 8위에서 6위로 2계단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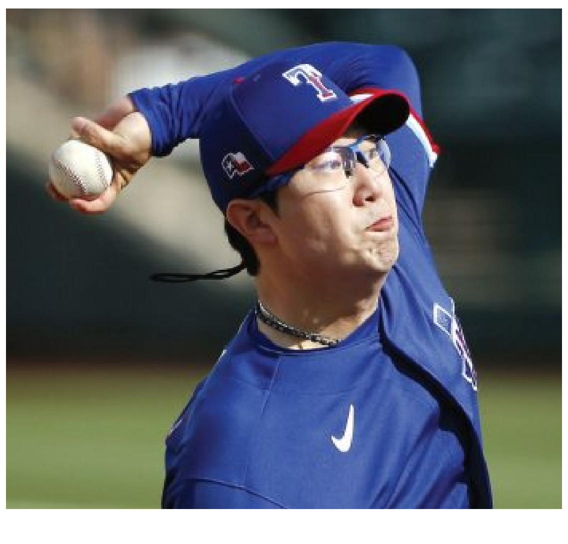
토트넘의 4-2-3-1 전술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는 동안 후반 31분 케인의 득점에 도움을 주면서 리그 9호 도움을 작성, 이번 시즌 공격포인트를 34개(18골 16도움)로 늘렸다.

토트넘의 마지막 득점은 '찰떡 듀오' 손흥민과 케인이 합작했다. 손흥민이 후반 31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반대쪽에서 케인이 헤딩으로 자신의 멀티 골이자 팀의 4번째 골을 터트렸다. 이로써 손흥민과 케인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4골을 합작하며 'EPL 단일 시즌 최다골 합작'을 이뤄냈다.

지난 1월 2일 리즈 유나이티드와 정규리그 17라운드에서 13번째 합작골을 연출하며 1994~1995시즌 블랙번 로버스에서 13골을 함께 만들어낸 앨런 시어러-크리스 서턴의 기록과 타이를 이뤘던 손흥민-케인은 이번 득점으로 '역대 최다골 합작 듀오'로 우뚝 섰다. 더불어 손흥민과 케인은 EPL 통산 34골째를 합작하며 프랭크 램퍼드-디디에 드로그바(첼시)가 작성한 역대 최다골 합작 기록(36골)에 2골 차로 다가섰다. /연합뉴스

홈런 맞은 양현종

텍사스 연습경기 1이닝 1실점
"3주간 경쟁…다음엔 내 공 던질 것"



미국프로야구(MLB) 시범경기에 처음 등판한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긴장감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던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현종은 8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4-2로 앞선 8회 등판해 1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2개를 맞고 1점을 줬다.

텍사스가 4-3으로 앞선 상황에서 8회말에 경기가 끝나 양현종은 쑥스러운 세이브도 수확했다.

양현종은 경기 후 미국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긴장감보다는 설레는 마음이었다"며 "타자도 (타석에) 섰고, 관중도 있어서 재밌게 던졌다"고 했다.

그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다음에 등판하면 내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3주간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등판할 때마다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현종은 9일 몸을 체크하고 투수코치와 다음 등판 일정을 상의한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공인구 적응에 100%까진 아니지만,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현종은 지난달 24일 텍사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두 차례 불펜 투구와 한 차례 라이브 투구(타자를 세워 두고 던지는 것)를 거쳐 이날 실전에 처음으로 등판했다.

양현종은 "오늘 경기 전에 한국 팬들이 오셔서 한국말로 좋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 장점을 좋게 평가해주는 구단에도 감사한다"고 했다. 텍사스 구단은 양현종이 한국프로야구에서 남긴 꾸준한 성적과 7년 연속 투구 이닝 170이닝 돌파와 같은 내구성을 높이 산다.

/연합뉴스